

weekly hanyang News On campus

디스플레이 미래 구현

제 6회 차세대 디스플레이 워크숍 열려 산학연 잇는 정보 교류의 장 마련돼

3D가 대세인 시대,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텔레비전 등 디스플레이 분야의 일대 혁신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화 '아바타'와 스마트폰 보급의 영향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대학 디스플레이공학연구소가 산학연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6일과 7일, 이를 동안 한양 종합기술연구원(HIT) 6층 대회의실에서 '제 6회 차세대 디스플레이 워크숍'이 열렸다. 우리대학 디스플레이공학연구소,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구동기술및시스템연구회, 수요지향적 정보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학생, 교수, 연구원, 기업 실무진 등 참석자들은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을 주목했다.



▲ 차세대 디스플레이 워크숍 현장

행사 첫날, 유창재(공과대·전자통신컴퓨터) 교수의 '고효율 무편광판 액정 디스플레이 기술' 발표를 시작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 기술'과 '3D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강연이 이어졌다. 이어 둘째 날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요소기술'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학계 석학을 비롯해 삼성전자, 엘지 디스플레이(LG Display) 등 기업 실무인사와 연구수석들이 연사로 초청돼 산학연을 잇는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구동기술및시스템연구회장인 유재희(홍익대) 교수는 "매년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워크숍을 통해 미래를 이끄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공학연구소장인 권오경(공과대·전자통신컴퓨터) 교수는 "디스플레이 분야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각계각층에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마친 이번 워크숍을 바탕으로 향후 디스플레이 구동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7년에 설립된 디스플레이공학연구소는 디스플레이에 관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며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소는 논문 실적과 특허 출원 등 전 범위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연구 활성화와 산학연 간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연구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박영주 학생기자 cherish914@hanyang.ac.kr

630

